

부모-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이 영 경 장 훈 최 진 이 허 태 균[†]

대전 용운초등학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특정 의사소통 유형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나 아동 중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해 왔다. 그러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일치 여부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및 그 일치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과 그 부모를 포함하여 594명이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지각하는 의사소통(개방형, 문제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지각 일치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역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했다. 셋째, 자녀보다 부모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보다 아이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 아이가 지각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가지는 시사점 및 제한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아동의 문제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1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우울, 주의력 결핍, 흡연, 약물복용,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2007년 학생 정신건강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도입하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보통 등교 거부, 학업성적의 저하, 게으름, 부주의, 무관심한 태도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김정규, 정종진, 1985).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청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위로 발전되는 등 심각한 장애로 진전될 수 있다(윤요은, 1998; Garbarino & Vondra, 1987). 최근 아동·청소년비행의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비행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류가정의 청소년에게도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그 가운데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수진, 2001).

아동의 문제행동은 개인, 문화, 사회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김선희, 김경연, 1999).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과 가정, 학교, 이웃 등 아동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심리적, 사회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다(성영혜, 1992). 아동의 문제행동은 자기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며, 문제행동이란 아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Kauffman, 1981). 문제행동이 아동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재복(2006)은 문제행동이 아동·청소년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간행동의 일종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의 범주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 중 문제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범죄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들을 포괄한다. 즉, 문제행동이란 현재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부적응적인 행동양식을 표출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특성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문제행동의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화하였다(전연진, 2002; Achenbach, 1991a; Barbe, 1963; Kirk, 1972). 현재 아동의 문제행동 연구의 근간이 되는 Achenbach의 연구에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9가지 문제행동 유형을 분류하였다(Achenbach, 1991a). Achenbach(1991a)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광범위 요인으로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면화 행동문제로 분류하였고, 협소범위 요인으로는 위축행동, 신체증상, 불안/우울,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정신분열증, 비행, 공격행동, 성문제 등 아홉 가지로 분류하였다(Wenar, 1994). 이는 국내아동을 대상으로 CBCL의 타당화 연구를 한 유안진, 한미현(199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보이는 문제행동은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등 5가지로 나타났다(한미현, 199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에게 주로 나타나는 핵심 문제들만을 추출한 한미현(1996)의 분류에 기초한 CBCL을 사용해 아동의 생물적 요인보다는 출생 시부터 아동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방식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이미 생리적으로 결정된 기질이나 행동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Rutter, 1979; Thomas, Chess, & Birch, 1968). 반대로 가정환경 요인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환경적 원인을 연구한 Patterson(1980)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과 별거, 한 부모, 부모의 학대, 무관심, 부모 중 한 쪽이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와 같이 부정적인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인 가정환경 중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거절, 거부, 질책,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같은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의 증가와 관련이 높다(민동일, 2004; 방주은, 2001).

가정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정의 구성원 중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자명하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가족 응집력을 높임으로써 아이의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민동일, 2004).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기본이며, 가장 포괄적인 상호작용이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좋고 나쁨에 따라 아이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 의견 또는 감정과 의미를 교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

단이 포함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상호반향적 과정이다(김오남, 1994; 민하영, 1991; Galvin & Brommel, 1986; Gross, Crandall & Knoll, 1980). 상호작용의 기본이라는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맥락에서 역시 가족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노성향, 1994).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연구한 연문희(1996)는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일방적 의사소통에 비해 감정의 정화작용을 돕는다. 둘째, 개방적 의사소통은 의사존중과 공감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셋째,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들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한다. 부모와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롭고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김수연, 1997)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부모-자녀가 자유롭게 사실이나 감정에 대해 공유할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김주분, 1994; 김희영, 1999; 마정건, 1988; 최홍규, 2000)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반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많은 부적응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유형을 크게 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I-message, 개방형, 일치형)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You-message, 문제형, 회유·비난·계산·혼란형)의 두 가지로 설명한다(김주분,

1994; 안현정, 2004; Satir, 1983).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중 그 형태가 덜 복잡하고 단순한 Barnes와 Olson(1985)의 분류에 따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여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말하는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부모로부터 비난적인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개방형 혹은 지지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문제형 혹은 비난형 의사소통은 아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지지적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불명확하고 모순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199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노정화, 2002),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비행과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김계순, 2007). 특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학교생활 부적응과 문제행동이 더 많이 야기되었다(김주분, 1994; 손민경, 2005). 자신의 부모가 비 반응적이며 비 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며(권보연, 1999), 자아존중감은 외현

화 행동문제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행동문제를 매개로 하여 여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하였다(손민경, 2005). 또한, 박승채(2008)의 연구에서는 Barnes와 Olson의 분류에 의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를 통해 역기능적(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낮고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았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동문제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주로 부모의 입장이나 아동의 일방적인 지각에만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혹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요구된다. 아동과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지각 일치도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어떤 특정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나 자녀 중 한쪽이 그들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러한 오지각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흔히 부모와 자녀관계를 포함한 많은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특정행동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의 일치도가 어떠한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이상에 기술한 바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제기에 주목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정도가 다른지를 고찰하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의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과의 의사소통 정도는 다른가?

연구문제 1-2. 아동이 지각하는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1-3.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과의 의사소통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자녀 의사소통 지각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1. 부모, 자녀가 각각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하위유형은 어떻게 관계되는가?

연구문제 2-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 유형(총 4가지 - 아버지의 아동과의 의사소통 지각, 어머니의 아동과의 의사소통 지각, 아동의 아버지와 의사소통 지각, 아동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지각)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연구문제 2-3.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 학교 5·6학년, 12개 학급의 아동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아동 374명과 그의 아버지 374명, 어머니 374명, 총 1122명 이었다. 그 중 성실하게 응답되지 않은 표본들을 제외하고, 본 조사에 참가한 최종 대상자는 아동 198명, 그의 아버지 198명 그리고 어머니 198명, 총 594명이었다. 부와 모, 자녀의 응답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료가 모두 분석에서 제외되어 누락자료 비율이 높았다.

측정도구

Barnes와 Olson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PAC)를 김윤희(1990)가 번역하고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보고하는 부모용과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보고하는 아동용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검사의 하위유형으로는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과 장애를 측정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이 있으며, 각 영역 별로 10개의 문항이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개방형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하며 문제형은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의 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의사소통 지각 차이검증은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는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Barnes와 Olson(1985)이 1,841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검사의 신뢰도(α 계수)는 개방형이 .87, 문제형은 .78이었으며, 김윤희(1990)의 연구에서는 각각 .82, .7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용·아동용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모두 .84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Achenbach의 아동행동평가척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Achenbach(1991a)가 제작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를 유안진, 한미현(1995)이 타당화한 것으로 하위척도는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보이는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검사는 총 40개의 문항이고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받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과잉행동이 .70, 불안 행동이 .76, 위축행동이 .73, 공격행동이 .79, 미성숙 행동이 .68이었다.

절차 및 자료분석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표집은 2008년 4월에서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 374명과 그들의 자녀 374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설문지 250여 쌍이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가 한 가정에 속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3자간의 조

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설문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중 한 사람이라도 불성실한 응답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최종 연구대상은 198 가정의 594명으로 선정되었다. 아동의 경우 수업시간 2시간을 활용해 먼저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을 직접 자기기입하도록 한 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 40개에 대해 아동이 직접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기입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설문지는 14명을 제외한 360명이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이 중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응답이 모두 성실한 가정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198가정, 594명의 설문지만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지각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지각 및 지각 일치도가 자녀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과의 의사소통 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와 어

머니의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항 구성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지각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보다 어머니가 지각한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

와 어머니의 지각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항 구성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이 인식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한 결과에 있어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점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가 지각한 아동과의 의사소통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의 지각이 서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에 대한 대응 표본 t검증을 한 결과

표 1. 아버지와 어머니 의사소통 지각차이 검증 (n=198)

	아 버 지		어 머 니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방형 의사소통	35.96	5.660	37.14	5.888	-3.256**
문제형 의사소통	20.77	5.502	20.02	5.365	2.372

**p < .01

표 2. 자녀의 의사소통 지각 차이 검증 (n=198)

	아 버 지		어 머 니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방형 의사소통	35.06	7.397	36.87	7.010	-5.736***
문제형 의사소통	22.02	7.609	21.51	7.115	1.826

***p < .001

표 3.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 의사소통 지각차이 검증 (n=198)

	아 버 지		자 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방형 의사소통	35.96	5.660	35.06	7.397	1.691
문제형 의사소통	20.77	5.502	22.02	7.609	-2.195*

* $p < .05$

표 4.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 의사소통 지각차이 검증 (n=198)

	어 머 니		자 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방형 의사소통	37.14	5.888	36.87	7.010	.537
문제형 의사소통	20.02	5.365	21.51	7.115	-2.782**

** $p < .01$

는 표 3과 같고, 어머니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에 대한 의사소통 지각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3에서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버지는 평균이 35.9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평균이 35.06으로 아버지와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표 4에서 어머니의 평균 37.14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 36.87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평균이 20.77,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평균이 22.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와 아동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지각은 아버지·어머니가 지각한 점수가 아동이 지각한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아버지·어머니보다 아동의 지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신들이 아동이 지각하는 것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고, 아동은 부모가 지각하는 것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지각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 하위유형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하위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계성을 검토하였다.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유형별 문제행동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아이의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상

표 5.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유형별 문제행동과의 상관분석 결과 (n=198)

변인	과잉행동	불안 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개방형 의사소통(부)	-.001	-.193**	-.146*	-.162*	-.058
문제형 의사소통(부)	-.078	-.111	-.128	-.162*	-.043
개방형 의사소통(모)	-.042	-.177*	-.177*	-.213**	-.086
문제형 의사소통(모)	-.129	-.162*	-.157*	-.234**	-.075

* $p < .05$, ** $p < .01$

주: 문제형 의사소통도 개방형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뜻함.

표 6.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유형별 문제행동과의 상관분석 결과 (n=198)

변인	과잉행동	불안 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개방형 의사소통(부)	-.132	-.280**	-.250**	-.277**	-.259**
문제형 의사소통(부)	-.372**	-.406**	-.352**	-.388**	-.442**
개방형 의사소통(모)	-.054	-.150*	-.220**	-.289**	-.190**
문제형 의사소통(모)	-.349**	-.334**	-.297**	-.392**	-.421**

* $p < .05$, ** $p < .01$

주: 문제형 의사소통도 개방형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뜻함.

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아이의 공격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한 경우 아이의 문제행동 중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역채점된 문제형 의사소통은 경우에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을 경우 아이의 공격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과 아이의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의사소통에서 부적 상관을 보인 아이의 공격행동과 불안행동, 위축행동에서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문제형 의사소통이 적을 경우 공격행동, 불안행동, 위축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아이와의 의사소통 지각을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 하위유형의 관계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 하위유형과의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개방형

표 7. 아동 문제행동과 의사소통 방향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198)

	예언변인	ΔR^2	β	t
문제행동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26	-.476	-7.569***

*** $p < .001$

표 8. 아동 문제행동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일치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198)

	예언변인	ΔR^2	β	t
문제행동	아버지- 자녀 의사소통 일치도	.0228	.167	2.365*

* $p < .05$

의사소통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처럼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문제형 의사소통 또한 아이의 문제행동 하위 요인과 전체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를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 하위유형과 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보다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이 아이의 문제행동과 보다 많은 상관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의사소통지각 유형(총 4가지 즉,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지각,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지각, 자녀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지각, 자녀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지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독립변인의 허용지수(tolerance)는 최소 .31에서 1.00이었고, 변산팽창지수(VIF)는 최소 1.00에서 3.2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에 모든 요인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아이들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는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지각의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량은 22%로 나타났다.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녀와 아버지의 지각 일치도와 자녀와 어머니의 지각 일치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독립변인의 허용지수(tolerance)

는 최소 .66에서 1.00이었고, 변산팽창지수(VIF)는 최소 1.00에서 1.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에 모든 요인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된다.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 일치도와 문제행동간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아이들의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아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부모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각자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 유형에 따른 기여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측정해본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심성경, 김나람(1997)이 보고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인식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많이 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아동과 부모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는 정의경과 황해익(200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측정한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의사소통 특성 경향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양현아, 2003)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문제형 의사소통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결과를 통해 부모나 자녀 모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버지-어머니 스스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자녀도 아버지와 의사소통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더욱 개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이 부모들과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의사소통보다 자유롭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자유롭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적게 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자녀가 느끼는 지각 수준보다 부모가 느끼는 지각 수준이 더 약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 하위유형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의사소통 지각 유형(총 4가지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어머니의 지각, 자녀의 아버지와 의사소통 지각, 자녀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지각)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네 가지 의사소통 지각 유형 중 아동의 문제 행동 발생 확률을 예언해 주는 요인은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도로, 자녀가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일으킨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 이는 김현정(1996)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긍정적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비해 비행수준과 높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보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지각보다는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도가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과 더욱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녀·아버지의 지각 일치도와 자녀·어머니의 지각 일치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일치도 중 자녀와 아버지와 지각 일치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더 일어난다고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의

의사소통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일치할수록 아동기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녀가 왜곡 없이 바르게 이해하여 서로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일치할수록 아동기 자녀가 가정이나 학교 환경에서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적게 일으킬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일치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와 의사소통 방식이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예측해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지각하는 아이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아이가 지각하는 아버지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 지각의 차이로 인해 아이의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대전광역시 소재한 2개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중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결손가정을 연구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설문은 총 80문항으로 집중시간이 짧은 초등학생인 연구대상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응답하기에는 분량이 많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문항수를 줄이고 좀 더 간결한 척도로 수정한다면 불성실한 응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의 지각에 대해 조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기존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이 아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의 지각에 의존한 것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지각 차이를 밝히고,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과정이 최소 2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상호반향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시도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 사이의 지각 차이에 관심을 두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 당사자들의 각각의 지각과 차이 정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이라는 변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까지 밝혔다는 점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형 의사소통은 감소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은 증가(정태권, 1997; 한경순, 2004)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자녀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참고하여 아버지와 의사소통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실질적인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적절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들이 지각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비해 아동의 문제행동과 폭넓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를 부모-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계순 (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오남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규, 정종진(1985). Bender-Gestalt Test와 유아의 정서장애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논문집, 제9집.

김선희,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7(1), 155-166.

김수연 (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김수진 (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희 (1990).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주분 (1994). 어머니-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영 (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정 (1996).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또래지위 및 호기심과 청소년 비행성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보연 (1999).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 (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정화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 (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동일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채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통제력과 행동문제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주은 (2001).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재복 (2006). 실업계 고교생의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3(2), 66-88.
- 성영혜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민경 (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성경, 김나림 (1997). 아버지-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17(2), 139-160.
- 안현정 (2004).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아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 (1996).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서울: 양서원.
- 유안진, 한미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2), 5-21.
- 윤요은 (1998).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의경, 황혜익 (2000).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영유아보육연구, 6, 47-65.
- 정태권 (1997). 교류분석(TA)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홍규 (2000). 아버지와 자녀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순 (2004). 방과후 보육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arbe, W. B. (1963). *The Exceptional Child*.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 Barne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and Wilson, M. (eds.), *Family Inventories*, D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 Garbarino, J. & Vondra, J. (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Issues and Perspectives*. In M.R. Brassard, R. Germain, & S.N. Hart (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pp. 25 - 44. New York: Pergamon Press.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auffman. J. M. (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2nd ed.)*. Columbus: A Bell& Howell Company.
- Kirk, S. A. (1972).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Patterson, G. R. (1980). Mother: The Unacknowledged victims. With commentary by E. E. Maccoby: with reply by the author.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 321-347.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T. W.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Thomas, A., Chess, S.,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enar, C. (199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McGraw-Hill, Inc.
- 원고접수일 : 2008. 10.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14.
게재결정일 : 2008. 11. 20.

**Congruenc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communication style:
the impact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Youngkyung Lee

Hoon Jang

Jinyi Choi

Taekyun Hur

Daejeon Yongoon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perception congruence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594 parents and their 11 to 12 years old offsprings from 198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How the parents or the children perceive their communication pattern with each other were rated on the aspects of Open or Problematic Communic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erception congruence on the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s.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thers, compared to the fathers, perceived their communication with their offsprings as more open. Second, children also perceived that children themselves have open communication more with mothers than with fathers. Third, compared to their offsprings, parents evaluated that their communication was less problematic. Fourth, compared to parents'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style, children's were related more to their problematic behaviors. Furthermore, problematic communication with fathers was the important factor to predict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Last, more problematic behavior was predicted when the communication consistency between the father and the child was low. Further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views of family counselling, school education, and correctional practice for adolescents.

Key words :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